

##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 3기 운영 결과

영남문화재연구원은 7월 25일(토)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2015년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 3기를 운영하였다.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는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발굴조사 현장체험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굴 조사된 유물의 정리 방법과 조사 자료의 종합적인 보고방법에 대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문화재 발굴과 역사 자료의 기록·보존 방법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7월 25일 토요일에 실시한 『어린이 발굴학교』 3기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솔잎지역아동센터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천초등학교 17명, 동대구초등학교 8명, 청구중학교 3명이 참가해 왜관 3단지 발굴조사 현장과 본원 강당에서 발굴조사와 고고학에 대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어린이 발굴학교』 3기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 복원해 보며, 문화재는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KODAK 5005 EPP 27 KODAK 5005 EPP 27 KODAK



유구그리기 체험시간, 실측

26A 27 26A 27



현장의 기록 사진에 담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본 과거로의 여행!

